

## 정답

1	③	2	①	3	③	4	①	5	③
6	④	7	②	8	⑤	9	④	10	③
11	②	12	⑤	13	③	14	⑤	15	②
16	④	17	③	18	⑤	19	④	20	②
21	⑤	22	①	23	③	24	⑤	25	⑤
26	④	27	①	28	①	29	②	30	①
31	③	32	②	33	④	34	④	35	②
36	②	37	④	38	④	39	⑤	40	②
41	①	42	②	43	⑤	44	③	45	③

## 국어 영역

## 해설

### \*\* 화법 \*\*

#### 1. [출제의도]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

학생은 교수가 조선의 온실의 난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‘조선의 온실은 땅을 데운 것이 균요.’라고 하며 요약하고 있을 뿐,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.

① 학생은 온실의 시작이 1619년에 만들어진 ‘하이델베르크 온실’이라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질문하고 있다. ② 학생은 기름종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. ④ 학생은 『조선왕조실록』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온실이란 화제를 접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다. 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의 설명을 이해했음을 표현하고 있다.

#### 2. [출제의도] 인터뷰 내용 구체화하기

교수는 마지막에 조선의 온실을 통해 선조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. ‘꽃을 사랑한 조선의 임금들’은 교수의 마지막 발언을 반영한 제목이 아니다.

② 『조선왕조실록』에는 겨울에 임금님께 꽃을 올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, 『산가요록』에는 조선의 온실을 짓는 방법이 나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선의 온실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. ④ 조선의 온실이 채광을 위해 남쪽에 45도 경사진 창을 내었다는 것, 기름종이를 사용하여 채소들이 충분한 햇빛을 받게 하였다는 것이 교수의 설명에 나와 있다.

#### 3. [출제의도] 발표 전략 파악하기

학생은 [A]에서 소셜 브레인 이론을 근거로 인간의 뇌 용량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졌다고 설명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.

#### 4. [출제의도] 발표 내용 파악하기

학생은 발표에서 인간의 뇌 용량을 침팬지의 뇌 용량과 비교하고 있으며(㉠), 동영상과 그래프 등을 활용하고 있다(㉡). 또한 신뢰질 비와 집단 크기의 수치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으며(㉢), 친구들에게 ‘말로 하는 털 고르기’를 통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당부하고 있다(㉣).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.

**5. [출제의도]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**

인간이 털 고르기를 하는 대신 언어를 진화시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하고 있을 뿐, 말로 하는 털 고르기의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① 인간의 뇌 용량이 커진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, 침팬지의 뇌 용량이 작아진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.
- ② 인간은 침팬지에 비해 훨씬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므로, 발표 내용과는 다르다.
- ④ 인간은 집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침팬지처럼 털 고르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.
- ⑤ 발표 내용에 뇌 용량은 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.

**\*\* 작문 \*\***

**6. [출제의도]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**

적절한 수준의 불안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학생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.

- ① 과도한 불안이 청소년의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였을 뿐,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.

**7. [출제의도]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**

②-1의 2008년과 2013년의 진료 인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안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.

**8. [출제의도] 조건에 맞는 글쓰기**

⑤는 적절한 수준의 불안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마지막 단락의 관점을 반영하였다. 그리고 독과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조하고 있다.

- ①, ④ 대조의 방법만 사용하였고, ② 마지막 단락의 관점만 제시하였다.

**9. [출제의도] 작문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**

학생의 초고에는 선생님이 아닌, 학생의 의견을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 있다.

- ① 복사기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부탁으로 초고를 마무리하고 있다.
- ③ 예상되는 교장 선생님의 우려에 대해서, 복사기 유료 사용의 장점을 언급하고 도우미 선발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(2문단).
- ⑤ 유료 복사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이웃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(3문단).

**10. [출제의도]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**

1문단에서 학생들이 복사하는 방법을 조사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제시하고 있다. 2문단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단을 이어주는 접속어로는 '그래서, 그러므로' 등이 적절하다.

- ① '들고'에 호응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'비용이'라는 주어를 넣어야 한다.
- ② 이 글은 복사기 설치와 관련한 건의문이다. 가정에 복합기가 있으면 편리하다는 내용은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.
- ④ '로서'는 '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'을 나타낼 때, '로써'는 '어떤 일의 수단이나 조건'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격조사이다.
- 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'말다'의 사동 표현인 '말기면'이 적절하다.

**\*\* 문법 \*\***

**11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에 따른 발음하기**

㉠에서 'ㄴ'은 'ㄹ' 앞이나 뒤에서 'ㄹ'로 발음하기에 [대괄령]이라고 읽는다.

**12. [출제의도]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하기**

㉡는 체언 '그것'과 조사 '이'가 어울려 줄어진 경우로 ㄴ(제33항)의 규정을 적용한 적절한 사례이다.

① 체언 '무엇'과 조사 '을'이 어울려 준 대로 적은 경우로 ㄴ에 해당한다. ② 체언 '이것'과 조사 '은'이 어울려 준 대로 적은 경우로 ㄴ에 해당한다. ③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로 ㄱ과 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 ④ 체언 '여기'와 조사 '에'를 구별하여 적었으므로 ㄱ에 해당한다.

**13. [출제의도] 띄어쓰기 파악하기**

앞말에 조사가 붙을 때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. ㉠ '웃고만 있었다'의 본용언 '웃고'에 보조사 '만'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보조 용언 '있었다'를 띄어 쓴 것이다. ④ '척'은 '그럴 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'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.

**14. [출제의도] 사전 활용하기**

'끝다㉡'는 '끝다㉠'과 달리 【...에서 ...을】의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, 문장 구조상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.

**15. [출제의도] 중의적 표현 이해하기**

'형은 나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.'는 '형은 나와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.'와 '내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.'로 중의적으로 해석된다.

**\*\* 인문 \*\***

□ 출전: 이종원, 「인간과 기술의 관계, 변하고 있다」

**16. [출제의도]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**

글쓴이는 기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관점들을 고대, 근대,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소개한 뒤, 그중 하이데거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.

**17. [출제의도] 세부 정보 파악하기**

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기술이 삶의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간주하였고(1문단), 하이데거 역시 기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로 파악하였기(5문단) 때문에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. ① ㉠은 법률을 테크네로 구분하지 않았다. ② ㉠, ㉡은 모두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하지 않았다.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한 사람은 피히테이다. ④ ㉡은 기술이 정치적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하였다.

**18. [출제의도] 추리의 적절성 파악하기**

20세기에 들어 등장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관점은,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. 이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은 ⑤이다.

**19. [출제의도] 외적 증거에 따른 비교하기**

돈 아이디어는 기술로 인해 '나'와 세계의 관계, '나'의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.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돈 아이디어 역시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다.

**\*\* 사회 \*\***

□ 출전: 박정호, 「전략적 공약을 통한 이윤추구 행위」

**20. [출제의도] 개괄적 정보 파악하기**

전략적 공약의 개념과 목적은 2문단에, 성공 요건은 3문단에, 활용 사례는 2문단과 4문단에 나와 있다. 그러나 전략적 공약의 유래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.

**21. [출제의도] 세부 정보 파악하기**

해당 기업은 전략적 공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.

① 전략적 공약은 해당 기업의 선택 범위를 스스로 제한한다. ③ 해당 기업은 전략적 공약을 통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. 경쟁 기업의 단기적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. ④ 해당 기업은 전략적 공약의 실행을 위해 과잉 투자로 비춰질 만큼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.

**22. [출제의도]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**

A사가 'A1'의 개발 계획을 포기한 것은 A사의 결정이므로 권한 위임의 사례로 볼 수 없다.

**23. [출제의도]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**

'부여하다'는 '사람에게 권리·명예·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다.'라는 뜻이다. 따라서 ㉔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말은 '주는'이다.

**\*\* 과학 \*\***

□ 출전: 존 타일러 보너, 「크기의 과학」

**24. [출제의도]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**

2문단에서 주사위를 예로 들어 '면적-부피의 법칙'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(①, ③). 글 전체적으로 걸리버와 소인국 사람, 거인국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며(②), 1문단에서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(④).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없다.

**25. [출제의도] 세부 내용 추론하기**

[A]를 통해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늘어나 향온 동물이 발산하는 열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하지만 '면적-부피의 법칙'에 따르면 표면적이 커지는 것( $12^2$ )보다 부피는 더 커지게( $12^3$ ) 된다. 이는 발산되는 열에너지보다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.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하고 발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하므로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에너지에 대한 발산되는 열에너지의 비율은 작아지게 된다.

**26. [출제의도] 추리의 적절성 파악하기**

거인국 사람의 경우 늘어난 자신의 몸무게를 버티려면 다리의 힘의 세기가 커져야 하고, 이를 위해서는 다리의 근육 단면적이 커져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거인국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다리가 굵어야 걸을 수 있다.

① 소인국 사람은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므로 소인국 사람이 대사 활동을 줄인다고 생존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.

⑤ 소인국 사람의 몸의 크기는  $1/12^3$ 로 작아지는데 다리 힘의 세기는  $1/12^2$ 로 작아지므로 몸무게보다 힘의 세기가 더 크게 된다. 그러므로 단면적을 늘려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없다.

**27. [출제의도]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**

㉔는 '값이나 무게 따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다.'라는 뜻이다.

② '앞쪽으로 움직이다.' ③ '일정한 직장이거나 일터에 다니다.' ④ '감기 따위의 병이 낫다.'

⑤ '말이나 사실, 소문 따위가 널리 알려지다.'

## \*\* 예술 \*\*

□ 출전: 임석재, 「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」

### 28. [출제의도] 핵심 정보 파악하기

이 글은 안팎의 분별을 없앤 원통(圓通)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옥 공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. 따라서 이 글의 표제는 '한옥 공간의 의미', 부제는 '안팎의 분별을 없앤 원통의 공간'이 적절하다.

④ 3문단에서 서양 건축의 내과 분할을 한옥과 비교하고 있지만 이는 한옥 공간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내용이다. ⑤ 동선 구조의 효율성은 질러가기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표제로 적절하지 않다.

### 29. [출제의도]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

중문에서 안방1로 가기 위해 안채의 대청에서 안방2를 통해 가는 것은 돌아가기에 해당한다.

① 1문단에 방과 방 사이에 문이 난 경우가 많아 문을 트면 길이 나게 된다고 나와 있다. 안방1과 안방2도 문을 트면 길이 나게 된다. ③ 2문단에 한옥의 공간은 원처럼 둥글어서 통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며, 그 예도 제시되어 있다. ④ 4문단에 한옥에서는 여러 조건에 따라 동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. ⑤ 1문단에 한옥은 사방으로 적당히 뚫려 있고 적당히 막혀 있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다. 안방2는 대청, 안마당, 안방1 등으로 뚫려 있다.

### 30. [출제의도] 세부 정보 파악하기

한옥은 개별 채를 기본으로 꾸임에 따라 'ㄱ'자형, 'ㄷ'자형, 'ㄹ'자형, 'ㅁ'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.

② 공간의 윤곽을 먼저 정한 뒤, 내부를 구성하는 것은 ㉠에 대한 설명이다. ③ 하나의 기본 공간 단위가 밖으로 증식하면서 분할하는 것은 ㉡에 대한 설명이다. ④ 분할의 방식에 따라 건물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은 ㉠과 ㉡의 공통점이다.

## \*\* 고전시가 \*\*

□ 출전: 정약용, 「탐진어가(耽津漁歌) 1」  
작자 미상, 「논밭 갈아~」

### 31. [출제의도]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

(가)는 '봄'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뱀장어잡이를 나서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, (나)는 '석양'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산에서 내려오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.

② (나)에만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.

### 32. [출제의도] 작품 간 공통점·차이점 파악하기

(가)는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, <보기>는 농민들이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. <보기>의 '이방'과 '황두'는 모두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존재로, 이들은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다.

### 33. [출제의도]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

'마과람'은 출항한 배가 돌아올 때를 알려주는 자연 현상을, '석양'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.

## \*\* 고전소설 \*\*

□ 출전: 작자 미상, 「황월선전」

### 34. [출제의도] 사건 전개 양상 파악하기

월선이 박씨가 모함을 한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.

② ‘박을 깨어 보니, 그 안에는 백미(白米)가 가득하였다.’에는 전기적(傳奇的)인 요소가 드러나 있다. ③ 박씨는 무녀와 시비 운행의 힘을 빌려 월선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모함하였고, 이에 황공이 월선을 죽이려고 한다.

### 35. [출제의도]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

월성은 [B]에서 월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‘누이가 죽으면~’, ‘남이 묻거든 간밤에 죽었다 하고 선산(先山)에 허장(虛葬)하오면~’이라는 등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. 반면 [A]에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.

### 36. [출제의도] 한자 성어 적용하기

‘월선이 엎드러지는 거동을 차마 보지 못할 지경’이었으므로, ‘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다.’는 의미의 목불인견(目不忍見)이 가장 잘 어울린다.

① 괄목상대(刮目相對):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. ③ 사필귀정(事必歸正):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. ④ 안하무인(眼下無人):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. ⑤ 후회막급(後悔莫及):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 없음.

## \*\* 현대시 \*\*

□ 출전: 김소월, 「나의 집」  
나희덕, 「방을 얻다」

### 37. [출제의도]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

(가)는 ‘나는 지으리, 나의 집을’에서, (나)는 ‘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, /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/ 내가 이미 세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’에서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. 이를 활용하여 (가)는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기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을, (나)는 ‘아주머니’의 따뜻함에 화자가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.

① (가)는 ‘하얀’, ‘회계’ 등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, (나)는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.

### 38. [출제의도]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

㉠은 화자가 ‘그대’를 기다리는 공간, ‘그대’와 함께 살고 싶은 공간, 희망의 공간으로 볼 수 있고, ㉡은 집안의 내력이 깊은 빈방을 마음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다는 ‘아주머니’의 말을 통해 추억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.

### 39. [출제의도] 갈래 변화에 따른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

(나)의 [C]는 화자가 한옥에서 발길을 돌려 나오면서 생각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. 이 부분은 ‘아주머니’의 마음이 담긴 말을 듣고 화자가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의미이지, 그 방을 꼭 얻겠다는 의미는 아니다.

## \*\* 현대소설 \*\*

□ 출전: 최일남, 「노란 봉투」

**40. [출제의도]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**

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도, 작품 밖 서술자가 ‘광순’을 바라보는 ‘기형’의 시각을 빌려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.

**41. [출제의도]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**

[A]에는 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원어 시집이나 한문이 많은 문학 평론집을 들고 다니는 ‘광순’에 대한 ‘기형’의 경외심(敬畏心)이 드러나 있다. 반면 [B]에는 고등학교 시절 경외의 대상이었던 ‘광순’이 ‘얕은수’로 자신을 속이려 하는 모습에 섭섭함과 실망감을 느끼는 ‘기형’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.

**42. [출제의도]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**

‘광순’이 아무도 데려간 적이 없는 자신의 집에 ‘기형’을 데리고 간 것에서 ‘광순’이 ‘기형’을 여느 친구들과과는 다르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**43. [출제의도]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**

‘광순’의 청탁을 ‘기형’이 들어주지 않은 것은 ‘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될 성싶지 않은 데다, 그런 걸 말고 나설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았’기 때문이지 ‘기형’이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니다.

**\*\* 희곡 \*\***

□ 출전: 이강백, 「다섯」

**44. [출제의도] 연출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**

㉔에서 ‘마’가 ‘가, 나, 다, 라’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냄새가 나는 인물을 찾으려는 의도로 바라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. 통 속의 정어리를 확인할 때 ‘마’만 동참하지 않는 장면을 보더라도 ‘마’는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**45. [출제의도]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**

시민들이 ‘냄새’가 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자신들의 일시적인 안전을 위한 것이다. ‘냄새’가 나는 사람이 시민들을 위협한 상황에 처하게 한 근본적 원인은 아니다.

①, ④ 시민들은 밀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 밑 창고실에서 숨어 지내며 선장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. 선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⑤ 시민들이 일제히 ‘통’ 속에 숨는 것은 ‘신탄라국’에 도착할 때까지만 들키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 상황에 적당히 안주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.